

2014학년도 수시 논술 모의고사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II)

소속 학교	고등학교	수험 번호	성 명
-------	------	-------	-----

◆ 유 의 사 항 ◆

1. 시험 시간은 100분임
2.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항 번호에 검은색 펜이나 연필로 작성할 것
3.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는 드러내지 말 것
4. 연습은 문제지 여백을 이용할 것
5. 답안지 분량은 문항별 답안 길이에 맞추어져 있음

감독확인



이화여자대학교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미국은 두 가지 감금 제도, 즉 오번 모형과 필라델피아 모형을 발전시켜 왔다. 오번 모형은 야간의 개인 독방, 그리고 공동의 사역과 급식을 엄격하게 규정했다. 수감자들에게는 절대적인 침묵이 강요되었고, 말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간수들에게 허락을 받은 후 낮은 목소리로 말해야 했다. 이런 규율은 수도원 모형 또는 공장 모형을 참조한 것이었다. 감옥은 개인의 도덕적 존재감을 고립시켰다가 엄격한 위계질서의 틀 속에 넣어 통합해 버리는, 사회의 축소판으로 간주되었다. 여기에서는 수평적 관계라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고 오로지 수직적인 커뮤니케이션만 가능했다. 오번 모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사회를 그대로 복제할 것이라는 논거를 내세웠다. 물질적 수단에 의해 통제가 이루어지며, 사람들은 감시와 처벌에 의해 복종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감자들을 야생 동물처럼 우리에 가두는 대신 유용한 방식으로 통합하고 좋은 습관을 가르치며 적극적인 감시와 침묵의 성찰을 통해 나쁜 품성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러한 법칙은 수감자들이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반복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을 기반으로 하였다. 따라서 독방, 커뮤니케이션의 제약, 지속적인 감시에 따른 범 집행 등을 통해 범죄자는 사회적 개인으로 교화되어야만 했다. 법은 그들을 유용하면서도 순종적인 행동에 길들여지도록 했고, 사회성을 갖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였다.

필라델피아 모형은 법의 적용 대신에 개인의 양심과 내적 계몽을 통해 범죄자를 교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수감자는 독방에서 스스로를 통제한다. 그는 자신의 열정과 주변의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자신의 양심으로 침잠한다. 그는 인간의 가슴속 깊이 살아 움직이는 도덕적 감정을 일깨운다. 따라서 필라델피아 모형에서는 법에 대한 경외심이나 처벌에 대한 공포심이 아니라 양심의 작용을 통해 수감자를 교화하려 한다. 피상적인 훈육이 아니라 심연의 복종심을, 태도의 변화가 아니라 도덕의 변화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런 모형의 감옥에서는 수감자의 양심, 그리고 그것이 대변해야 하는 침묵의 건축물 사이에서 교화가 이루어진다. 필라델피아 모형에서 벽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며 수감자는 감방 안에서 스스로와 대면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양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곳에서 수감자의 노동은 의무라기보다 위안의 성격이 강하다. 간수들은 위력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권위에 대한 존경심을 유지하기가 더 용이하다. 간수들은 감방을 순시할 때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인자한 말을 건네며, 수감자들에게 감사와 희망, 그리고 위안을 가져다준다. 감옥의 벽은 삭막하지만 사람은 선량하다고 간주된다. 폐쇄된 감옥이 비록 일시적인 무덤과 같을지라도 그 안에서 부활은 너무도 쉽게 이루어진다. 오번의 감옥 모형이 아주 기본적인 요소만을 갖춘 사회였다면, 필라델피아 감옥 모형은 소멸했다가 되살아나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나] 발가락 둘이 붙은 채 태어나 네 발가락인 사람도 있고 손가락이 하나 더 생겨 육손이인 사람도 있다. 네 발가락인 사람은 쓸모없는 군살이 두 발가락을 붙여 버린 셈이고 육손이인 사람은 쓸모없는 손가락이 하나 더 있는 셈이다. 마음이나 지식도 그와 같지 말라는 법은 없다. 똑똑한 사람들 중에는 색깔과 모양 또는 지식을 지나치게 구별하여 사람들의 눈과 귀를 현란하게 만들곤 한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태어난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잃지 않는다. 발가락이 붙어 있어도 네 발가락이라 생각하지 않고 손가락 하나가 더 있어도 육손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길다고 하여 넘친다고 하지도 않고 짧다고 하여 부족하다고 하지도 않는다. 물오리는 다리가 짧지만 그것을 길게 이어 주면 괴로워하고 두루미는 다리가 길지만 그것을 짧게 잘라 주면 슬퍼한다. 마찬가지로 달라붙은 발가락을 갈라놓으면 아파서 울고 덧붙은 손가락을 뜯어내면 비명을 지른다. 누구는 수가 남고 누구는 수가 모자라지만 억지로 고치려면 둘 다 괴로운 것이다.

곡선을 그리는 그림쇠, 직선을 긋는 데 쓰는 먹줄, 네모난 모양을 그리는 데 사용하는 곱자 등으로 사물을 규격화하는 것은 자연스런 본성을 해치는 것이다. 밧줄을 이용하여 사물을 묶거나 풀을 이용하여 서로 달라붙게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본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세상의 사물은 저마다의 모양이 있다. 각각의 모양은 그림쇠 때문에 굽어지지도 않고 먹줄 때문에 곧아지지도 않으며 곱자 때문에 네모지지도 않는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째서 그렇게 생겨났는지를 모르며 계속해서 그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은 예악(禮樂)과 같은 규범을 세워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평가롭하고 인의(仁義)와 같은 준칙을 내세워 온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 가려 한다. 가슴을 줄이며 세상을 격정한다. 그렇지만 예악이나 인의가 인간의 자연스러운 참모습은 아닐 것이다. 역사가 생긴 이래로 이것 때문에 온 세상이 얼마나 시끄러워지고 말았던가!

[다] 지혜로운 그리스인들은 회화(繪畵)에 훨씬 좁은 한계를 설정했다. 오로지 아름다운 물체를 묘사해야 한다는 것으로써 회화의 영역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그리스 미술가는 아름다운 것 외에는 묘사하지 않았다. 아름다운 것이라 해도 그것이 이상화되지 않거나 저급한 종류로 남아 있는 한, 미술가의 우연한 소재, 연습 대상, 휴식 수단에 불과했다. 그들이 예술에서 가장 아끼고 귀중하게 생각한 것은 예술의 최종 목표, 곧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그리스의 예술에서도 흥해 보일 수 있는 사물을 그려 낸 사람이 없지는 않았으나 그리스인들은 그들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했다. 인간의 모습에서 흠이 있고 추한 것을 즐겨 그린 파우손은 몹시 가난하게 살았다. 이발소, 지저분한 작업장 등을 정성스럽게 그린 페이리아코스는 '오물(汚物) 화가'라는 별명을 얻었다. 정치를 주도한 당국도 미술가를 본연의 영역에 강제로 붙들어 두고자 했다. 미술가에게 한층 더 아름다운 방향으로 묘사하기를 명하였으며, 테베에서는 법률로써 회

화적(數畵的)인 묘사를 금지하였다. 올림피아 제전의 심판들이 지녔던 법칙도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한다는 정신과 연결되었다. 올림피아 제전의 승자들은 조각상 하나를 상으로 받았는데, 승자를 꼭 빼닮은 조각상은 세 번의 올림피아에서 연속으로 우승한 승자에게만 주어졌다. 보통 사람을 닮은 평범한 조각상이 흔해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예술조차 시민법의 지배를 받았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웃는다. 하지만 웃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예술은 최종적으로 쾌감을 추구한다. 쾌감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어떤 종류의 쾌감은 허용하고 또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판단과 재량에 달려 있을 수 있다. 특히 여러 사람의 눈에 보이는 조형 예술의 경우, 크든 작든 소속 집단에 영향을 끼치곤 하기 때문에 법의 세심한 감시를 받아야 할 때도 있는 것이다.

[라] 천하에 두려워할 만한 존재는 오직 백성뿐이다. 백성은 홍수나 화재, 호랑이나 표범보다 훨씬 두려운 존재이다. 그런데 뒷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들을 업신여기며 모질게 부리니 대체 무슨 이유에서인가?

이미 이루어진 일이나 함께 즐길 줄 알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얽매이며 순순히 법에 따라 뒷사람의 부림을 받는 사람들은 향민(恒民: 늘 그대로인 백성)이다. 가진 것을 빼앗겨 살이 깎이고 수입과 소출을 바치라는 요구에 괴로워하며 뒷사람을 탓하는 사람들은 원민(怨民: 원망을 품은 백성)이다. 푸줏간에 자취를 감추고 몰래 탄마음을 품은 채 세상을 흘겨보고 있다가 혹 무슨 변고라도 생기면 자신의 바람을 실현하려는 자들이 있다. 이들을 호민(豪民: 호걸스러운 백성)이라 부를 수 있을 터인데 이들은 몹시 두려운 존재들이다. 호민이 나라의 빈틈을 엿보다가 팔을 휘두르며 외치면 원민이 모여들어 한목소리로 외치고 그러면 향민도 창과 칼을 들고 모여든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사람이 적으며 백성들은 유순한 편이다. 평상시에 큰 인물이나 빼어난 인재가 나와 세상에 쓰이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만, 난리를 당해서 호민이 백성들을 선동하고 반란의 피수가 되는 일이 없으니 다행이라면 이 또한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은 고려와 다르다. 고려에서는 조정에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데 제한을 두었고 산천에서 나오는 이익을 백성들과 함께 누렸으며 상업과 공업을 장려하여 혜택을 주었다. 하지만 우리 조선은 얼마 되지 않는 백성들을 과도하게 부리고 있다. 백성들이 5할의 세금을 내면 나라로 들어오는 것은 겨우 1할이요, 나머지는 그 사이에서 간사한 자들이 빼돌린다. 관아(官衙)에 비축된 것이 없다 보니 무슨 일만 생기면 1년에 두 번 세금을 거두기도 하고, 각 고을의 수령들이 이를 빌미로 삼아 백성들에게 남은 것을 탈탈 털어 간다.

백성들의 시름과 원망이 고려 말의 혼란한 때보다도 심한데 지금의 뒷사람들은 편안히 여기며 두려워할 줄 모른다. 아마도 우리나라에 호민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견훤이나 궁예 같은 자가 나와 한번 몽둥이를 휘두르면 원망이 가득한 백성들이 추종하지 않으리라고 어찌 장담할 것인가?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라면 두려워할 만한 형세를 깨달아야 할 것이 아닌가?

[마] 시민 불복종은 상당수의 시민들이 정상적인 방식으로 변화를 추구할 수 없거나 불만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 일어난다. 또는 정부의 교체나 정책이 적법성과 합헌성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의심하는 경우에도 시민 불복종이 발생한다. 시민 불복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변화 또는 바람직한 변화를 추구하거나 어떤 현상을 유지하거나 복원하기 위한 목적을 띤다. 예를 들어 행정부나 연방 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해져서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침해되거나 삼권분립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 시민들은 불복종 운동을 일으킨다. 이런 시민 불복종은 공공연하게 법에 불복종한다는 점에서 대중들의 눈을 피해 이루어지는 범죄적 불복종과 다르다. 대중들이 공개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것과 범죄를 목적으로 은밀하게 법을 위반하는 것을 구분하지 않는다면 이는 분명 사악한 의도에서 이루어지는 편견일 것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시민 불복종이 법과 정부 체도에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일반 범죄자들이 다수의 동의에 굴복하려는 의사가 없는 반면, 시민 불복종은 집단을 위해 움직인다.

만약 불복종하는 시민을 ‘폭도’라고 부르고자 한다면 이는 오로지 시민들이 폭력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러한 속성으로부터 우리는 시민 불복종이 혁명적인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혁명가들이 기존 정부의 틀과 법치의 정당성을 거부하는 반면, 시민 불복종은 이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시민 불복종과 혁명가들의 차이를 따지는 일은 시민 불복종과 범죄 행위를 구분하는 일보다 더 어렵다. 왜냐하면 시민 불복종은 세상을 바꾸려는 의지를 혁명가들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불복종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들도 과감한 변화를 요구한다. 이런 사례는 간디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는 비폭력 운동을 전개했음에도 그가 기존 식민지 정권의 틀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1 제시문 [가]에 나타난 두 가지의 통제 유형에 근거하여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의 입장을 비교하시오. [40점]

2 제시문 [라]의 ‘호민’과 제시문 [마]의 ‘시민’이 지닌 집단적 성격을 대비하여 분석하시오. [30점]

3 우리 사회의 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자신이 생각하는 요인에 순위를 매겨 최대 3개까지 선택하도록 한 설문 결과가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①은 순위에 관계 없이 각 요인이 선택된 빈도를, ②는 각 요인이 1순위로 선택된 빈도를 보여 준다. ③은 각 요인의 복수응답 빈도와 1순위 응답 빈도 사이의 격차이다. 이 설문에서는 또한 참여자들이 자신의 현재 생활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만족도를 ‘만족’, ‘보통’, ‘불만족’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 만족도 답변 결과에 따라 집단을 나누고, 안전 위협 요인에 대한 각 집단별 1순위 응답 결과를 ④에 정리하였다. 각 열의 ()내 숫자는 각 요인 응답빈도의 순위이다. [30점]

(단위: %, () 안은 순위)

안전 위협 요인	① 복수 응답		② 1순위 응답		③ 복수-1순위 응답 빈도 격차		④ 주관적 만족도별 1순위 응답					
							만족		보통		불만족	
범죄 발생	57.4	(1)	29.3	(1)	28.1	(1)	31.2	(1)	29.3	(1)	26.3	(1)
경제적 위험	34.8	(2)	15.3	(3)	19.5	(3)	13.4	(3)	15.0	(3)	18.5	(2)
국가 안보	32.3	(3)	18.4	(2)	13.9	(5)	18.1	(2)	18.9	(2)	17.9	(3)
도덕성 부족	30.9	(4)	10.6	(4)	20.3	(2)	11.2	(4)	10.3	(4)	10.2	(4)
빈부 격차	20.8	(5)	5.0	(7)	15.8	(4)	3.9	(8)	4.5	(8)	7.7	(5)
인재(人災)	20.5	(6)	7.0	(5)	13.5	(6)	7.4	(5)	7.0	(5)	6.4	(6)
환경 오염	17.7	(7)	5.2	(6)	12.5	(7)	5.3	(6)	5.3	(6)	4.6	(7)
자연 재해	14.6	(9)	4.4	(8)	10.2	(9)	4.2	(7)	4.7	(7)	4.2	(8)
신종 질병	15.2	(8)	3.6	(9)	11.6	(8)	3.7	(9)	3.8	(9)	3.1	(9)
자원(에너지) 고갈	5.0	(10)	1.2	(10)	3.8	(10)	1.5	(10)	1.0	(10)	1.0	(10)
기타	0.2	(11)	0.0	(11)	0.2	(11)	0.1	(11)	0.2	(11)	0.1	(11)
계	249.4		100.0		149.4		100.0		100.0		100.0	

(1) 조사 결과 가장 큰 안전 위협 요인으로 꼽힌 것은 ‘범죄 발생’인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 중에서 설문 참여자들이 2순위 혹은 3순위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2) 표에는 설문 참여자들의 주관적 만족도별 구성 비율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다. 만약 ‘만족’이라고 답한 참여자가 100명이라면 ‘불만족’이라고 답한 참여자는 몇 명인지를 ‘범죄 발생’에 대한 응답 빈도 자료를 사용하여 추론하시오.